

# “송담 스님 탈종, 종도들이 막자”

### 탈종 반대 모임, 23일 기자회견... 원로의원 등 면담 계획

한국불교 선지식 인촌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과 문도 스님들의 탈종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 모임’은 9월 23일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담 스님이 탈종을 제고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송담 스님께서 종도들의 등불이시다. 진실로 참회하고 청원 드려니 탈종의 결단만은 거둬 달라”면서 “스님의 탈종 선언은 미혹한 종도들을 깨우는 사자후라고 생각하며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출가수행자가 스승을 잃어버리는 것은 칠혹 같은 밤 천길 벼랑에서 헛불을 잃는 것과 같다”면서 “한시 지체 없이 종단으로 돌아오셔서 미혹한 후학들에게 역대 조사께서 지켜오신 간화선 수행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스승을 잃어버린 종단이 조선시대 승과 폐지를 당한 것과 같은 충격에 빠져 있다고 토로한 모임은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원로 대덕 스님이 나서주길 바라며 송담 스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전국 수좌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 모임’은 수덕사 前 주지 용산 스님과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과 前 해인사 주지 도성 스님, 불국사 前 주지 설조 스님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임은 향후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원 25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기자회견**  
\* 송담 대선사님은 종도들의 등불이십니다. \*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 모임’은 9월 23일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수원사 신도 “주지 교체 이유 무엇인가”

### 24일 초하루 법회서 재차 입장문... “수원사 지키겠다”

갑작스러운 수원사 주지 교체에 반발한 수원사 신도들이 조계종 총무원과 해당 교구본사인 용주사에 “수원사 주지 교체 이유를 밝혀라”며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사 신도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9월 24일 수원사에서 자체적으로 초하루 법회를 열고 일방적 주지 인사를 성토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원사 신도 800명이 참석했다.

비상대책위는 당일 오전 총무원을 항의 방문해 신임 주지 임명 철회와 인선 기준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 주지 성관 스님의 만류로 자체 초하루법회를 여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날 비상대책위는 2차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18일 신도회가 총무원장과 용주사 주지 스님에게 신임 주지 임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명백한 채 신임 주지를 임명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신도들을 절

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불리한 인사에도 신도들은 숨죽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성관 스님이 수원사를 떠나야 하는 이유와 주지 인선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공개 답변해달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는 이날 30년 간 성관 스님과 함께 수원사를 일궈온 한 신도의 애끓는 편지도 공개했다.

신도는 편지에서 “성관 스님이 부임하면서 콘테이너에서 시작된 금강경 강의가 이제는 기초교리반으로 운영돼 52기를 맞았고, 자리를 깔고 법회를 보던 수원사가 이제는 불교회관으로 탈바꿈했다”면서 “수원사 사태를 보며 우리 모두는 비통의 도를 넘어 분노를 참지 못해 서로 부둥켜 울고 있다. 이제 전국의 불자들이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비상’ 준비... 불교센터·공연장 건립

(飛上)

### 동국대 역점 추진하는 108주년기념관 살피보니

한국의 대표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 이하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기념관 건립불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젊고 역동적인 대학 이미지를 구현하고 부족했던 대학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는 9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동국대가 추진하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혜화문 부지에 연면적 26,890.38㎡(8,134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또한 1000명을 수용해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다목적 회의시설, 간화선 집중수행을 하고자 국제선센터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기념관의 주요시설로 들어선다. 또한 영화, 음악, 공연,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동문 출신 대중문화예술인과 인문, 정관계, 재계 등에서 명성을 떨친 동문인을 위한 ‘동국 스타광장’도 자리 잡는다.

### 연면적 8천여 평에 기념관 건립

### 450억 원 불사... 내년 초 착공

### 동국불교센터 등 불교시설부터

### 컨벤션홀·동문회관·박물관까지

### 완공시 지역 대표 랜드마크 기대

25만 동국 동문인을 위한 총동문회관도 자리잡는다. 총동문회관 시설에는 회의실과 세미나실, 총동창회장 집무실과 사무실로 구성되며 동문 전용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계획이다.

기념관의 외경 디자인은 불교를 모티브로 했다. 불교와 동국대를 연상시키는 숫자 108을 국제선센터 하부에 염주를 모티브로 한 108개 기둥을 세우며, 또 기념관 외관을 불교를 상징하는 ‘구’자를 형상화해



동국대는 9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동국대가 추진하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혜화문 부지에 연면적 26,890.38㎡(8,134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삼라만상이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 사상을 표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한국 최대 뮤지컬 공연장 건립도 추진한다. 지난 9월 4일 설엔 컴퍼니와 협약을 맺고 장충 수영장 부지를 뮤지컬 공연장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는 뮤지컬 공연장은 1900석 규모로 지어진다. 동국대는 최종적으로 대학로-동대문 DDP-동국대 공연장-한남동 블루스퀘어로 이어지는 서울 문화공연 벨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웅 동국대 전략홍보실장(국어교육과 교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이 필수적”이라며 “현대적인 랜드마크 건물 건립을 통해 ‘108년 역사와 전통’으로 상징되는 기존 학교 이미지에 ‘젊고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부족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새롭게 완성되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연·체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10월 8일 저녁 7시 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 16곳 교구 경선... 중앙총회의원 선거 본격화

### 조계종 중앙선관위 9월 22~24일 후보등록 마감

### 직할교구 등 16곳 경선 치열

### 신흥사 등 교구 8곳 '무투표'

### 명진 스님 쌍계사로 출마해

### 총회 입성시 야권 강화 전망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조계종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9월 24일로 최종 마감됐다.

9월 22~2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 제13교구본사 수덕사 등은 교구 정원인 2명의 후보가 입

후보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의석인 4석이 배정된 직할교구를 비롯해 2명을 선출하는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교구는 8곳이며 치열한 경선을 통해 총회의원을 선출하는 교구는 모두 16곳이다.

또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조계종 총재모임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과 함께 제13교구본사 쌍계사에 입후보한 것도 눈

길을 끄는 부분이다. 명진 스님의 경우 자격심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투표없이 당선된다. 명진 스님이 삼화도량에 합류하게 되면 야권 세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에는 전 초심호계원장 혜자 스님과 적광, 심우 스님 등이 21명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1명은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마감까지 계파별로 치열한 ‘눈치작전’이 계속됐던 직능직 총회의원은 마감 30분을 남겨두고 윤곽이 드러났다.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직능직에는 호산(양평 용문사)·영배(현 총회의원)·각림(현 총회의원)·혜자(전 초심호계원장)·혜초(서울 사자암)·성행(현 총회의원)·수암(현 총회의원)·지홍(현 총회의원)·적광(진주 청곡사)·이암(전 총회의원)·정도

(현 총회의원)·탄원(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도견(전 총무원 기획국장)·범해(현 총회의원)·정산(현 총회의원)·진화(현 총회의원)·초격(현 총회의원)·성문(전 동화사 주지)·지현(현 총회의원)·심우(현 총회의원)·법상(현 총회의원)스님이 등록했다.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후보는 지홍·지성·명준·혜정·도수·묘주·혜범·희유·인수 스님으로 지난 22일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했다.

한편,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10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직능대표와 비구니대표 중앙총회의원은 10월 13일에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신성민 기자

국태안민 남북통일 / 창조경제 민족화합 / 나라위한 대법회

불기 2558년 울맥대본산 아일다울원

# 제1회 범종단 용화사 금강계단 구족계 / 국제보살계 戒

석가여래咐囑 : 불자여! 율법의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제방불자 승가여! 재가여! 좋은인연 맺어가는 보살의길 향해

종단을 초월하여 한국불교 계율의 율법을 지키고저 서원세워

갑오년 부처님 지혜력·자비력·가피력 나라위한 서원 대법회에

깊은 뜻과 마음으로 청정계단에 동참하여 무루복락 지으소서.

- 삼 화 상 / 전계화상 수진대울사 갈마사 해남대울사 교수사 무관대울사
- 칠 중 사 / 활안. 수법. 수광. 수혜. 수오. 수각. 수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화상

-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음 9. 23) (목) (2박 3일) (구족계)  
10월 18일(음 9. 25) (토) 10시 (보살계)
- ◆ 장 소 : 전남담양 용화사 아일다울원
- ◆ 문 의 : 061)381-2683, 055)334-1122 / 팩스 055)328-2762  
010-7316-4789(섭외위원장 수월)
- 1부] 오전 - 불자위한 보살계 2부] 오후 - 나라위한 수록재(영가수계)
- ◆ 공 연 : 중국소림무술단 시범 / 한국태극권단 시범

주 최 : 해동울맥법흥대울사문회 / 주 관 : 한국불교승가단체협의회

계 단 장 법민 대 회 장 대광

집행위원장 법장 봉행위원장 대풍

협 찬 : 동참종단 / 승가단체 / 각사암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